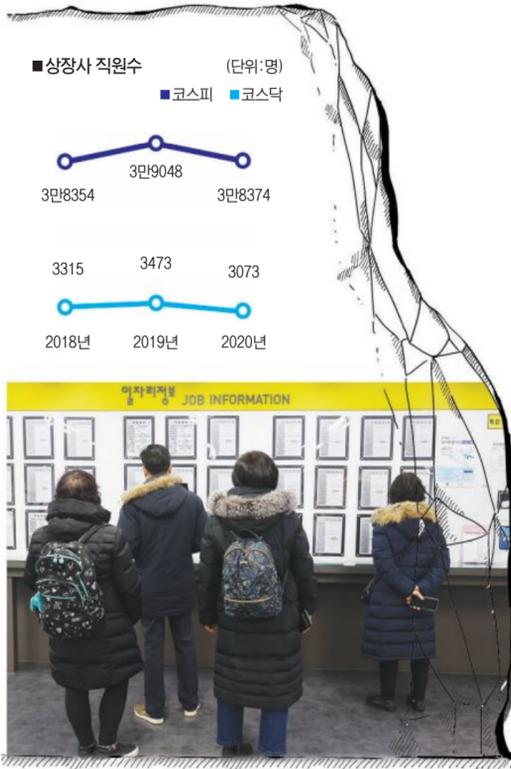


‘코로나 고용절벽’... 광주·전남 1000명 줄었다

지난해 상장사 37곳 1074명 ‘뚝’...전년비 2.5% 감소



광주·전남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상장기업 종사자 수가 지난해 10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타격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해도 ‘고용절벽’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광주일보가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정보조회’를 통해 집계한 지난해 3분기(9월30일) 기준 광주·전남 상장기업 37개사 직원 수는 총 4만1447명으로, 전년(4만2521명)보다 1074명(-2.5%) 감소했다.

상장사 37곳의 직원 수는 지난 2018년 4만1669명에서 이듬해 4만2521명으로, 852명(2.0%) 증가했지만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식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코스피) 상장사 16곳의 직원은 3만9048명에서 3만8374명으로, 674명(-1.7%)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기업 21곳 직원수는 지난 2019년 3473명에서 지난

해 3073명으로, 400명(-11.5%) 줄었다. 감소율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들의 고용절벽 현상이 더 심각했다.

코스피 상장사 직원 수는 3만8354명(2018년)에서 3만9048명(2019년)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 감소로 돌아섰고, 코스닥 상장법인은 3205명(2017년)→3315명(2018년)→3473명(2019년)으로 2년 연속 증가하다 지난해 꺾였다.

직원 수가 줄었다는 것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정년 퇴임을 한 직원 공백을 신규 채용으로 메우지 않았거나 경영사정으로 인해 해고를 했다는 걸 뜻한다. 지난 2019년 불거진 일본의 무역보복과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경영이 악화된 지역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며 만회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전남 상장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연간 총 급여액은 2조3183억원으로, 전년(3조528억원)보다 7346억원(-24.1%)이 줄었다.

코스피 상장사 16개사의 연간 총 급여액은 2조20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6965억원(-24.0%)이 줄었다. 코스닥 21개 상장법인 총 급여액은 1506억원에서 1125억

원으로, 381억원(-25.3%)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기준 광주·전남 상장기업들의 매출은 코스피·코스닥 부문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13개 코스피 상장사(한전·세화아이엠씨·우리종금 제외)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년 전보다 1272억(-2.6%) 줄었고 영업이익은 549억원(-19.8%) 감소했다. 코스닥 18개사(피피아이·박셀바이오·대신정보통신 제외) 매출은 1조2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898억원(-8.1%) 줄어 들었다. 영업이익은 무려 61.5%(364억원)나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적자전환한 기업은 코스피 4곳·코스닥 4곳 등 8개사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적자 전환한 기업은 금호타이어(-37억6300만원), 대우플러스(-14억4600만원), 금호에이치티(-20억2300만원), 다스코(-22억9100만원) 등 4곳이다. 파루(-81억5200만원), KPX생명과학(-5억1800만원), 와토스코리아(-3억4400만원), 정다운(-5억8300만원) 등 코스닥 상장사 4곳도 적자로 돌아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58.12 (-18.00)
↓ 코스닥	890.07 (-6.29)
↓ 금리(국고채 3년)	1.182 (-0.024)
↑ 환율(USD)	1142.70 (+2.40)

현장코칭 숙련 인력 양성

중진공 광주본부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매칭과 채용인력 숙련도 향상을 지원하는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참여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현실상 신규 채용 인력의 빠른 현장 적응과 기술·경영분야 직무 숙련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중진공은 2019년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을 도입했다. 기술명장 등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코칭을 진행해 숙련인력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신규인력 300명에게 현장코칭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에 선정될 경우 기업과 구직자 매칭을 진행한다. 매칭 시 최대 3개월간 구직자 인건비 월 60만원과 1대 1 현장 코칭 최대 12회를 지원한다.

또 코칭 분야를 기존 현장기술 분야에서 경영관리,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해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 퇴직(예정) 전문가, 고경력 과학기술 퇴직인력 등을 코칭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job.kosmes.or.kr)에서 상시적으로 신청받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베트남 공장 3400억 증설

금호타이어가 베트남 공장에 3400억원 규모의 증설 투자를 진행한다. 1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공장 증설에 3398억원을 투자하기로 정했다.

투자 기간은 올해 3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다. 금호타이어는 기존 베트남 공장 증장기 운영 계획에 따라 현재 부지 내 확보된 유휴부지를 활용, 연간 380만본을 생산할 규모의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베트남 공장 증설은 중장기적으로 북미 거래 물량 확대 계획에 대응하고, 향후 미국 반덤핑 관세 증가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금호타이어는 베트남 공장이 증설되더라도 고용 유지를 전제로 노조 측과 한국 공장 투자, 물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기부, 백년가게·백년소공인 700곳 선정키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랜 기간 가게를 운영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돕고자 올해 백년가게·백년소공인 700곳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혁신 의지, 차별성, 우수성, 성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는 열악한 점포 환경 개선을 위해 내·외부 인테리어, 유해 물질 제거, 안전설비 설치 등에 최대 420만원을 500여 곳에 지원하며, 100여 곳에 온라인 판로 확대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전국·지역 백년가게 협의회 등을 꾸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실태조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올해 잎새주 모델도 송가인이어라

보해 “전국적 매출 상승 기여” 계약 연장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잎새주 모델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계약을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송가인 소주 잎새주’라는 홍보효과를 통해 매출 증대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계약 연장의 배경이 됐다고 보해양조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보해양조는 진도 출신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송가인과 잎새주 모델 전속 계약을 맺었다.

송가인 효과는 곧장 나타났다. 송가인 모델 발탁 소식이 알려진 뒤 광주·전남 외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잎새주 판매처 등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코로나19로 주류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잎새주 매출은 전년 대비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송가인과 포스터 촬영을 마친 후 송가인을 상징하는 핑크색이 들어간 한정판 제품을 선보이는 등 잎새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최근 포스터 촬영에서는 기존 주류회사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연출을 시도해 송가인과 잎새주의 색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송가인 역시 고향 전라도를 대표하는 소주인 잎새주 모델이 됐다는 점에서 개인 소셜네트워크(SNS) 채널에 제품 사진을 공유하는 등 보해양조와 잎새주 알리기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부당한 농식품 규제 개선

aT ‘기업성장응답센터’ 출범

중소농식품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할 전담조직이 생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조직인 ‘aT기업성장응답센터’를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센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됐다. 이곳은 앞으로 불공정·불합리·부당한 규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거나, 개선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다.

공사는 전국의 3개 사업소와 11개 지역본부를 활용해 이들 기업과 접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사 홈페이지(aT.or.kr) 온라인 신고센터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